

1. 염려 대신 생각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인데, 이 단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림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나뉘다, 분리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마음이 나뉘어져 어수선한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사용하다'입니다. '염려'와 '생각'의 출발지가 똑같이 '마음'입니다. '염려'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생각'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고, '생각'은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온전하게 작동될 때'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리정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자유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방법도 '생각'입니다.

2.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에 28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함몰되어 먹고 사는 것 염려하다 인생 마치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모임 질문 (3월 24일 설교)

- 1) 이번 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 3)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 4) 이번 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 2024년 표어 -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 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 '갯세마네의 기도'
*일시 : 3월 25일(월)~29일(금) 오전 6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6시에 유튜브 생중계되니 가정에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4. 부활절 감사예배 *일시 : 3월 31일(주일)
- 5. 성찬식 - 다음주(31일)는 성찬주일입니다.
- 6.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천원
- 7.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 8.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요한 선교사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36차 목회자 아카데미(주제 : 가정 사역)에 참석하는 52명의 참석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